

# 흥기 행패에 절도...안전 위협하는 노숙인

### 불황에 늘어나는 노숙인 무관심 속 방치...잇단 범죄에 시민 불안 광주 보호시설도 크게 부족...직업교육 등 관리·지원 대책 시급

경기불황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면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노숙인들은 생계를 위해 절도를 일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신변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관리·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숙인 지원 시설은 '무등노숙인 쉼터(수용인원 20명)'와 '광주희망원(200명)' 등 2곳이다. 이 두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은 220명

에 달하는데, 매년 40~5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퇴소하면 그 자리를 새로운 노숙인들이 채우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사실상 항상 만원 상태인데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입소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 퇴소자가 거의 없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설 입소를 위해선 본인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 탓에 '정신질환'적 행동을 보이는 일부 노숙인의 경우 동의 절차가 쉽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게 복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시에 관한 구청, 경찰 등 기관·단체

들도 사실상 노숙인 관리에 두 손을 놓으면서 최근 들어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18일 교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노숙인 생활을 하던 A(47)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휴대전화도 없이 노숙생활을 해온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6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인근 편의점에서 14만원 상당의 먹거리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주일 가까이 절도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다 경찰서 인근에서 검거됐다.

지난 17일에도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술에 취해 흥기를 휘두른 노숙인 B(52)씨

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주지 없이 다른 노숙인들과 동구 일대에서 생활해온 B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대인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노숙인과 큰 목소리로 떠들다 편의점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가위로 위협했다가 범죄자의 신분이 됐다.

김오성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광주시의 노숙인 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 미비했던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동구 희망원 옆에 노숙인 지원센터건립할 예정이며, 보호시설과 쉼터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노숙인의 복지시설 입소와 직업교육 등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폭행 게임'으로 친구 숨지게 한 10대들 물고문하고 동영상까지 찍었다

### 광주북부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게임을 하며 친구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광주일보 2019년 6월 12일자 6면)이 피해자에게 물고문까지 하는 등 잔혹하게 괴롭힌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집단폭행으로 친구 김모(18)군을 숨지게 해 구속된 최모(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1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김군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하고, 조롱을 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등은 물을 싫어하는 김군에게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등 괴롭히고,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김군의 머리를 눌러 3~4차례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들은 또 김군이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백화점 주차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원을 빼앗은 뒤 출근하지 못한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온 몸이 붓고 멍든 김군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을 찍고 2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까지 했다.

1분 가량의 동영상에는 최근 일당이 "노예처럼 청소나 심부름을 한다. 주차장에서 붓을 흔들며 번 돈 75만원은 어딴지?" 등의 랩 형태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김군을 희화화하고 조롱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김군을 폭행해온 점, 김군의 부검결과, 범행 결과를 예견 가능했던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양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고향 방문 후 귀갓길 노부부 사망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 광양시 광영동 삼거리에서 A(31)씨가 몰던 스타렉스가 직진을하다 좌회전을 하던 모닝 차량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B(여·68)씨와 남편 C(73)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스타렉스 운전자 A씨와 뒷좌석에 타고있던 A씨의 딸(3)은 가슴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B씨 부부는 고향마을을 방문한 뒤 광양시 광영동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아 사고현장 인근 슈퍼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호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딸이 아파 급히 병원에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과속 여부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5·18 기획전시 둘러보는 장교들 18일 육군 보병학교 학생장교들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방문해 5·18 기획전시 '열흘간의 나비떼'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검찰 "손혜원, 정보 미리 파악 부동산 매입"

### 불구속 기소...손 의원 "차명 거래면 전 재산 기부"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 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관급공사 대가 금품 의혹 화순군 공무원 2명 구속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A과장(5급)과 B실장(5급)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산립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지역산립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현직 기자 C씨와 D씨, 조경업자 E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 또 조합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쟁긴 광고업자 1명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E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 12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광주 교육공무원 또 성범죄 구속

###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유치원 원장 등 수년간 상습 성추행

지난해 '스쿨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에서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 지역 교육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교육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지난 17일 구속됐다.

A씨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지난 3월 말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 회

계시스템(에듀파인)을 시연하던 중 해당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조사가 이뤄지면서 A씨는 유치원 원장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최근 수년간 10여명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수익원 착취 당한 유진박 "매니저 강력 처벌해 달라"

○...매니저에게 수익원을 착취당한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

○...18일 서울강서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통역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유진박은 매니저 A씨에게 7억원을 뜯겼

다고 주장하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던 A씨는 유진박이 소속사 학대 논란을 겪은 뒤 다시 만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A씨가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체를 갖는 등 7억원 상당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연합뉴스

##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4002 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 번에 해결!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